

# 19세기 일본의 대외위기와 사상적 반응\*

- 아이자와 야스시의 『신론』을 중심으로 -

이 호 윤\*\*

hopiti777@hanmail.net

##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아이자와 야스시의 국체론 |
| 2. 미토학과 아이자와 야스시 | 5. 제정교일치와 백성교화   |
| 3. 서양세력의 위협과 기독교 | 6. 나가며           |

主題語: 미토학(Mitogaku), 아이자와 야스시(Aizawa Yasushi), 『대일본사』(“Dai Nihonshi(Great History of Japan)”), 『신론』(“Shinron(New Theses)”), 존황양이(Sonno joi (Revere the Emperor, expel the barbarians))

## 1. 들어가며

19세기 동아시아는 ‘서세동점(西勢東漸)’으로 인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인 ‘천하질서(天下秩序)’가 흔들리고 ‘근대세계시스템’<sup>1)</sup>에 강제적으로 편입되는 시기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의 청조는 영국과의 아편전쟁(1840~1842)에서 패배하여 남경조약을 맺고 개항하여 서양 열강과 근대적 외교와 통상을 시작하였다. 토쿠가와 일본은 막부 창업이래의 대외정책이었던 나가사키를 통한 네덜란드와의 통상 이외의 서양제국과의 교섭을 금지한 ‘해금(海禁)’ 정책을 펴고 있었지만 서양선의 근해 출몰과 통상요구 및 미국의 페리(Matthew Calbraith Perry, 1794~1858) 제독의 함포외교에 의해 1854년 미일화친조약을 맺고 개국하는 것으로 ‘근대세계시스템’에 편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서세동점’에 의한 위기감과 세계관의 급격한 변화는

\* 본 연구는 2019년도 서울기독교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 받아 수행하였음

\*\* 서울기독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조교수

1) 세계시스템이란 역사적으로 지중해세계, 이슬람세계, 동아시아세계(천하질서) 등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복수의 세계시스템이 16세기 이후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주변부의 경제적 잉여를 중심부로 이송하기 위한 세계적 규모의 광대한 영역으로 전개되는 분업체제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하는 이매뉴얼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의 이론이다. 세계시스템에 대해서는 イマニユエル・ウォーラステイン; 川北稔 訳(1981)『近代世界システム：農業資本主義と「ヨーロッパ世界経済」の成立』岩波書店을 참조

당시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고 ‘서세동접’에 대한 극복하려고 하는 사상적 동향이 나타났는데 토쿠가와 일본의 경우 후기미토학(後期水戸學)이 그 대표적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후기미토학은 미토번의 『대일본사(大日本史)』 편찬작업으로 시작된 미토학이 막말(幕末) 내우외환(內憂外患)의 국가적 위기 극복 이를 극복하려고 등장한 사상이었다. 이러한 후기미토학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주자학(朱子學)을 비판하고 일본의 봉건사회를 지배해온 주자학에 대한 개혁적 학문으로 분류하거나<sup>2)</sup>, 메이지유신기의 역사적 움직임에 어떠한 의미와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논증되어 왔다. 즉 근대 천황제(天皇制)의 이데올로기적 지주를 이룬 국체론이 형상화된 사상<sup>3)</sup> 또는 일본을 신주(神州)로 인식하는 일본중심적 사고 및 대외적 배타주의 사상에 입각한 막부(幕府)말기 존황양이(尊皇攘夷)사상(尊皇攘夷思想)과 그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사상으로 이해되었으며 이러한 일본중심적사고의 대표적 개념으로 국체를 들고 있다.<sup>4)</sup> 그리고 메이지유신(明治維新)과 왕정복고를 실현한 존황양이 운동의 사상적 원동력으로 평가되는 후기미토학 사상의 대표적인 글이자 막말 존황양이 지사(志士)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아이자와 야스시(會澤安, 1782-1863)의 『신론(新論)』(1857년 간행)은 일본중심주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강력한 배외주의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sup>5)</sup> 후기미토학은 이렇듯 근대 천황제적 관점에서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토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은 존황양이 및 국체론과 같은 메이지 국가 형성의 기반사상으로서 평가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학 등과 함께 근대 일본의 아시아 침략주의 사상의 원형으로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등 근세 말기의 미토학의 모습보다는 근대 이후의 역사적 전개 속에서의 미토학의 역할을 근세로 소급하여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sup>6)</sup>

그런데 미토학은 유학·주자학적 역사관을 배경으로 시작된 미토번의 『대일본사(大日本史)』 편찬 작업으로 시작된 것으로 후기미토학도 전통적 유교사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일본적

2) 박명규(1991)「한국과 일본의 근대국가 형성과정에 관한 비교사적 연구-19세기 후반 정치변혁과정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37

3) 本郷隆盛(1995)「藤田幽谷『正名論』の歴史的位位置」衣笠安喜編『近世思想史研究の現在』思文閣, pp.157-158

4) Maurice B. Jansen, 濱田龍吉, 平尾道雄訳(1965)『坂本龍馬と明治維新』時事通信社, pp.113-114

5) 今中寛司編(1982)『日本近代化と維新』ぺりかん社, p.74

6) 비토 마사히데는 이러한 메이지유신을 실현한 존황양이운동의 사상적 원동력으로서 또는 근대천황제 이데올로기적 지주를 이룬 국체론의 형상화한 사상으로 높이 평가되었던 전전의 제언설의 시점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미토학의 본질을 전기미토학과 후기미토학으로 구분하여 후기미토학의 사상적 변용에 주목하면서 일본에서의 근대국가 형성이라고 하는 긴 과정 속에 미토학을 위치시키고 유학·주자학사상으로부터 출발한 미토학이 근대국가형성의 사상으로 변했음을 규명하였다. 尾藤正英(1972)「水戸学の特質」『日本思想大系』53, 岩波書店

특성을 강조하는 경향은 보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유교적 역사관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즉 미토학은 내외외환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토쿠가와 막번체제 수호를 위한 사상으로 등장한 것이지 근대적 사유가 작동한 메이지국가 건설 및 존황을 위한 토막 및 천황친정에 의한 천황제를 전제로 한 국체론을 주장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후기미토학 사상을 제재로 19세기 일본의 대외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사상적 반응을 후기미토학을 대표하는 사람 중 하나인 아이자와 야스시의 사상으로부터 살펴보고자 한다.<sup>7)</sup>

## 2. 미토학과 아이자와 야스시

주지하는 바와 같이 후기미토학은 토쿠가와 고산케(徳川御三家) 중 하나인 미토번(水戸藩)의 학문을 전·후기로 구분했을 때 그 후반기에 해당하는 학문적 특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에도시대 초기인 1657년 미토번의 제2대 번주 토쿠가와 미츠클니(徳川光圀, 1628-1700)는 주자학적 대의명분론에 기초한 사서인 『대일본사』 편찬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이 대일본사 편찬 사업을 기반으로 성립된 것이 미토학이었다. 토쿠가와 미츠클니에 의한 사서 편찬 작업은 1672년 에도의 번저(藩邸)에 편찬소인 쇼코칸(彰考館)을 설치한 후 본격화 하였는데 이 시기의 『대일본사』 편찬 사업은 본기(本紀)와 열전(列傳)부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토쿠가와 미츠클니는 처음에는 본기, 열전, 지(志), 표(表)로 구성된 기전체(紀傳體) 사서 편찬을 계획 하였지만 실제로 『대일본사』 중에서 본기와 열전 부분만 편찬이 진행되었다. 1700년 토쿠가와 미츠클니는 사망하였고 그 후 1715년에 본기와 열전이 탈고되었으며 1720년에 본기 73권, 열전 170권을 막부에 헌상하였다. 이때까지가 대일본사 편찬사업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이후 『대일본사』의 지·표 편찬에 착수했지만 1740년경부터 약 50년간에 걸쳐 편찬 사업이 정체되었다. 이 공백기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대일본사』 편찬사업은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는데 1786년 타치하라 스이켄(立原翠軒, 1744-1823)이 쇼코칸 총재로 부임하면서 대일본사 편찬 사업이 다시 진행되었다. 이시기 즉 19세기 전반기에 대외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도로 형성된 정치 실천론적 학문 사상이 후기미토학이다.<sup>8)</sup>

7) 상기 연구 이외에 후기미토학 및 아이자와 야스시의 사상에 관해서는 尾藤正英(1973)「水戸学の特質」『日本思想大系』53、岩波書店、辻本雅史(1990)『近世教育思想史の研究』思文閣出版、頼祺一編(1993)『日本の近世13—儒学・国学・洋学』中央公論社 등을 참조하였다.

8) 尾藤正英(1972)、pp.562-564

19세기 전반기 미토번에서는 오츠하마(大津浜) 사건이라는 토쿠가와 일본을 충격에 빠뜨린 대외위기 사건이 일어났다. 1824년 5월 미토번의 북쪽에 있는 오츠하마에 국적불명의 이국인 12명이 상륙하여 선박항해를 위한 신수식량(薪水食糧)을 요구한 사건이 일어났다. 미토번에서는 1812년경부터 이양선이 출몰하여 이를 경계하고 있었는데 그 이양선에서 서양인들이 오츠하마에 상륙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에도 방위 임무를 자임하고 있었던 미토번은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시 43세였던 아이자와 야스시는 미토번의 필담 담당자로 오츠하마에 파견되어 있었다. 이곳에 상륙한 이국인들은 그 동안 일본에게 통상을 요구한 러시아인이 아닌 영국인들이었고 이 때문에 아이자와 야스시는 위기감을 느꼈다. 해변에 상륙한 영국인들은 일본 근해에 고래잡이 때문에 접근하였다고 했지만 아이자와 야스시는 일본 침략을 목적으로 이들 이국인들이 일본에 왔다고 생각했다. 오츠하마 사건으로 위기감을 느낀 막부는 다음해인 1825년 이국선 격퇴령을 내렸고 아이자와 야스시도 강대한 서양 근대의 출현으로 인한 위기감으로 『신론』을 저술하였다.<sup>9)</sup> 그런데 아이자와 야스시의 사상은 존황양이를 그 슬로건으로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우외환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토쿠가와 막번체제 수호를 위한 사상이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이하에서 살펴보려 한다.

### 3. 서양세력의 위협과 기독교

아이자와 야스시의 『신론』<sup>10)</sup>은 1825년 2월, 토쿠가와 막부가 이국선 격퇴령을 내린 직후 집필하여 같은 해인 1825년 3월에 탈고된 것<sup>11)</sup>으로 막말의 대외 위기의식으로 인해 집필된 서적이다. 이 책은 ‘내우외환’이라고 명명된 당시의 국제적 상황·국내적 상황 속에서 생성된 아이자와 야스시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아이자와 야스시는 내우외환 상황 중에서 ‘외환’에 해당하는 서양세력의 침략적 위협을 『신론』에서 분석하였다. 그는 이러한 서양근대의 침략적 위협을 군사적 위기 문제가 아닌 종교 혹은 이데올로기 문제라고 파악하였다.

9) 頼祺一編(1993), pp.350-351

10) 이하의 『신론』에 대한 사료는 会沢安(1942)『新論・迪彝編』岩波文庫에서 인용하였으며 인용 사료에 달린 페이지는 본서의 페이지이다.

11) 아이자와 야스시는 탈고 다음해인 1826년 『신론』의 일부를 번주 토쿠가와 나리노부(徳川齊脩, 1797-1829)에게 헌상했다. 나리노부는 『신론』내용은 인정했지만 논지가 격렬하고 막정에 대한 과격한 비판 등이 있다고 하여 출판을 보류시켰고 그 후 문인들의 노력으로 1857년 에도(江戸) 玉山堂에서 출판되었다.

서양이 해상에 나타난 것은 거의 3백년으로 강역은 날로 넓어지고 육망은 날로 가득 차는 것은 그 지용(智勇)이 그 사람들이 크게 뛰어난 것인가, 인은(仁恩)이 인민들에게 매우 널리 퍼진 것인가, 예악형정(禮樂刑政)의 수양이 구비된 것인가, 애초에 신조귀설(神造鬼設)은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인가, 그런데 모두 그렇지 않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며 기량을 왕성하게 행하는 것으로 오직 기독교가 있을 뿐이다.<sup>12)</sup> (虜情)

그는 서양의 강성함의 비밀은 ‘지용(智勇)’, ‘인은(仁恩)’, ‘예악형정(제도)’, ‘신조귀설(기술)’ 등이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며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 강성함의 본질이라고 보았고 서양의 침략에 기독교가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기독교는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뺏는 힘이 있는데 서양세력은 무역으로 다른 나라의 정세를 파악한 후 틈이 보이면 습격하고 만약 습격이 불가능하다면 종교로 민심을 장악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민심을 장악하면 나라를 쉽게 병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아이자와 야스시는 서양세력의 위협이 군사적 문제가 아닌 종교적 문제라고 파악하였고 서양의 군사력은 물론 위협적이지만 그 이상으로 민심을 뺏을 수 있는 종교야말로 서양위험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아이자와 야스시는 서양세력이 이러한 민심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민중교회에 힘을 쏟는다고 보았다.

그런데 아이자와 야스시는 종교를 통한 민심획득은「기기(紀記)」에 보이는 일본 고대의 제정일치와 합치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시의 토쿠가와 막번체제는 제정일치와는 거리가 멀어 민심을 통합할 수 있는 ‘중심’이 없다고 생각했으며 민심을 끌어들이 수 있는 종교를 정치 시스템 속에 갖추어 놓을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꼈다. 아이자와 야스시는 민심을 통합하여 막번 체제 속으로 흡수할 수 있는 ‘중심’이 없는 상황으로 인해 민심이 서양 기독교국가 쪽으로 쏠리게 될 것을 걱정했다. 즉 ‘내우(=민심이반)’와 ‘외환(=서양세력의 위협)’을 민심을 둘러싼 이데올로기 문제로 파악하여 민심을 끌어들이 ‘중심’을 명확하게 하고 민심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국내질서 회복과 서양세력의 침략 위협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했다. 이 ‘중심’이 바로 아이자와 야스시가 『신론』에서 말한 국체론이라고 할 수 있다.

12) 西夷の海上に跋扈すること、機んど三百年にして、土疆日に広く、意欲日に満つるものは、これその智勇の大いに人に過絶するものあるか、仁恩の甚だ民に洽きか、礼樂刑政の修備せざるなきか、そもそも神造鬼設、人力のよくなすところにあらざるものあるか、而して皆然るにあらざるなり。彼その恃みて以て伎倆を逞しくするところのものは、独り一耶蘇教あるのみ。(p.94)

## 4. 아이자와 야스시의 국체론

제왕은 믿음으로써 세상을 보존하고 오래도록 평안하게 다스린다. 천하를 동요시키지 않는 자는 만민을 두려워하게 하고 복종하게 하여 세상을 장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모든 인민(億兆)이 한마음이 되어 모두가 그 후에 친밀하게 되어 이탈하지 않는 결실을 맺는 것을 정말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다. (國體上)<sup>13)</sup>

아이자와 야스시는 『신론』에서 제왕이 ‘예악형정’, 또는 ‘예악문물(禮樂文物)’에 바탕이 된 ‘덕치(德治)’로 대표되는 유교의 ‘오륜오상(五倫五常)’의 덕목으로 세상을 편안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보편적인 인류의 ‘도(道)’로 인해 모든 인민(億兆)이 한마음이 되어 따른다고 하였다. 아이자와의 국체론은 「기기」의 건국신화를 유교적 개념으로 해석한 것으로 국체는 ‘인류의 대도(大道)’의 현현(顯現)이며 ‘인류의 대도’는 ‘충효(忠孝)’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천조(天祖)’ 즉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天照大神)가 유교적 가치관인 충효를 근본으로 하여 일본을 건국하였고 또한 그 충효를 건국의 이념으로 삼았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백성은 오로지 천조를 경외하고 하늘의 후손(天胤)을 받드는 것만 알면 된다. 향할 곳을 하나로 정하고 다른 것을 보지 않는다. 이로써 민심을 하나로 하여 하늘과 사람이 합해진다. 이것이 제왕이 믿음으로써 세상을 보존하는 바이며 조종(祖宗)이 나라를 세워 (국가의) 근본을 연 근거의 대강이다. (國體上)<sup>14)</sup>

아이자와는 이러한 ‘보편적 인류의 도’는 ‘천조’가 ‘하늘의 후손(天胤)=역대천황’에게 전하고 ‘건국’하여 확정되었고 이러한 혈통이 황통의 증명이라고 하였다.

이미 스스로 혈통의 소속을 중시한다면 누가 감히 하늘의 후손(天胤)을 경외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평생 동안 모든 사람이 하늘이 내린 지위는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sup>15)</sup> (國體上)

13) 帝王の持みて以て四海を保ち、而して久しく安く長く治り、天下動搖せざる所の者は萬民を畏服して一世を把持するの謂に非ず。而して億兆、心を一にして、皆其の上に親しみて離るるに忍びざるの實こそ誠に待むべきなり。(p.13)

14) 故に民は唯々天祖を敬し天胤を奉ずることを知るのみ。郷ふ所一定して、異物を見ず。是を以て民志一にして天人合す。此れ帝王の持みて以て四海を保つ所にして、祖宗の國を建て基を開き給ひし所以の大體なり(p.23)

15) 夫れ既に自ら血屬を重んずれば、孰か敢れ天胤を敬せざらんや。故に一世を擧げて皆天位の犯すべからざるを知る。(p.31)

아이자와에 따르면 천황은 경외의 대상이 되는 천조와 혈통으로 연결된 하늘의 후계자이며 제사를 집행하여 천조와 일체가 되어 만민을 다스리는 위치에 설 수 있는 정통성을 얻는다. 이는 ‘천명(天命)’ 또는 ‘덕성(德性)’이라는 동아시아 유교 국가의 정통성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천황은 ‘상제(천명)-천자(황제)-제후국왕-신하-백성’으로 이어지는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천하를 경영하는 자에게 부여된 정통성보다는 존재 그 자체에 중요한 의미를 둔다고 할 수 있다. 즉 신민의 입장에서 보면 천조의 계승자인 천황의 존재 자체가 ‘인륜의 도’ 및 건국의 이념을 체현하고 그 규범으로서 눈앞에 있으며 천황은 천조와 일체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가치적으로는 ‘선(善)’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대일본사』 편찬사업으로 시작된 미토학은 전기 사업인 본기, 열전 편찬 시에는 본기에 기술되는 역대천황을 포함하여 각각의 인물에 대한 도덕상의 평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천황에 대해서는 정통을 구별하고 인신(人臣)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 기준으로 시시비비를 판정하였고 이는 『춘추(春秋)』, 『사기(史記)』 이래의 유교적 역사서술의 전통을 따른 것이며 그 중에서도 주자학의 도덕이념을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보편적 도덕이념에 입각한 역사인식과는 다르게 후기의 편찬사업은 그 대상이 지·표라는 제도사적 부분으로 바뀌어 당시 일본사회의 구조 내지 전통 즉 민족적 개성 또는 특수성 측면이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었다. 즉 군주가 도덕적인가, 계승이 정통적인가라는 동아시아 보편사상인 유교적 기준에 입각한 역사서술이 아니라, 일본 군주제의 특색, 국가조직, 사회제도 등 일본적 특색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sup>16)</sup> 따라서 전기미토학은 역대 천황에 대한 인격과 도덕성 등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하였지만 후기미토학에서는 역대 천황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황에 대한 ‘혁명’은 ‘인륜의 대의’=‘충효’라는 절대적 규범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여 역성혁명은 결코 용인될 수 없었으며 ‘황통일성(皇統一姓)’의 국체는 신민이 철저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것은 아이자와가 생각한 일본 군주제의 특색과 일본적 우월성의 핵심인 국체론에서는 천황은 정치의 주체가 아니며 단지 하늘과 천조에 대한 제사만이 천황의 역할이었다. 천황은 제사를 통해서 하늘과 천조에 대해서 책임을 질뿐이며 그 이외의 정치적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었다. 천황은 정치적으로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천황이 직접 국정을 관할한다는 ‘친정론(親政論)’은 등장하지 않으며 다만 이러한 만국보다 뛰어난 국체를 지킬 책임이 막부를 비롯한 신민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아이자와는 ‘황통일성’의 국체가 계속 보존되어 왔다는 것은 단순히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충효도덕이라는 ‘인륜의 대의’를

16) 尾藤正英(1973), pp.562-564

신민이 끊임없이 실천해 온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으며 그것은 천조의 건국의 원리를 신민이 잘 이해하고 보존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대저 군신과 부자는 천륜 중 가장 큰 것이다. 그래서 지극한 은혜가 안으로 내려와서 대의를 밖으로 밝혀 충효가 서며 그리하여 천인의 대도를 밝히고 밝혀 그것을 몸에 익힌다. 충으로 귀함을 귀히 여기고, 효로 부모와 가까워지며 역조가 마음을 하나로 잘 합하고 상하가 서로 친밀하게 된다. (國體上)<sup>17)</sup>

국체론은 일본의 우월성을 말하는 언설이며 그 우월성의 근거는 역성혁명이 없이 하나의 왕조가 계속되어 온 ‘황통일성’에서 기인하였다. 그것은 유교의 이상인 덕치의 실현과 이에 대한 신민의 끝없는 충효도덕의 실천이라는 노력의 결과였다고 보기 때문에 ‘황통일성’은 일본의 ‘군신부자(君臣父子)의 대도’가 다른 열국보다 뛰어난 증거이며 보편적인 ‘도’가 역사적으로 바르게 보존되어 왔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에서만 나타난 역성혁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중국이나 조선 같은 역성혁명이 발생했던 국가의 역사와 대비시킬 때 비교할 수 없는 우월성으로 생각했다.

효로써 충을 임금에게 옮기고 충으로 그 앞의 뜻을 받든다. 충효는 하나로부터 나왔다. 교훈이 풍속을 바르게 하면 말하지 않고도 교화되고 제사로써 정치가 되며, 정치로써 가르침이 된다. 가르침과 정치는 아직 나누어져 둘이 되지 않았다. (國體上)<sup>18)</sup>

아이자와는 충효가 건국의 원리라고 생각했으며 이것은 충효가 단지 부자 군신간의 사적인 개별 도덕에 머물지 않고 충효도덕론으로 신민과 국가와의 관계를 확정했다는 것은 상술한 바와 같다. 즉 사족(士族)을 비롯한 신민은 주군에 대한 충과 조상에 대한 효라는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수양하고 정치적, 국가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효일치는 국가를 충효라고 하는 도덕 문제로서 파악하고 사족들의 국가를 향한 내면으로부터의 능동성을 발휘하게 하는 논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민심흡인의 방책으로 제시된 국체론의 역성혁명이 없는 일본역사에 대한 ‘자기

17) 夫れ君臣や父子や、天倫の最も大なるものなり。而して至恩、内に隆んにして、大義外に明かに、忠孝立ちて、而して天人の大道昭昭乎として其れ著る。忠は以て貴を貴び、孝は以て親を親しみ、億兆の能く心を一にして、上下の能く相親しむものは、良に以有るなり。(p.15)

18) 孝は以て忠を君み移し、忠は以て其の先志を奉ず。忠孝は一に出づ。教訓俗を正せば、言はずして化し、祭は以て政となり、政は以て教となる。教と政とは未だ嘗て分れて二と爲らず。(p.22)



우월성'의 논리 즉 '황성일통'에 기인한 자기 우월적 언설은 아이자와 야스시만의 생각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아마자키 안사이(山崎闇齋, 1619-1682)는 「기기」속의 '신대(神代)'를 하주(夏殷周) '삼대(三代)'에 필적한 시대로 여겨 신대에서 '예악형정' 즉 일본의 상고시대에서 정주(程朱)의 도를 발견하였고 신대에 만들어진 선조(=천조)의 도는 '군신부자의 대의를 나타내는 도(=儒敎)'라고 여겼다. 그리고 안사이의 제자 아사미 케이사이(淺見綱齋, 1652-1711)는 역사적으로 역성혁명과 왕조교체가 없는 일본이야 말로 유교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도덕 예의'의 나라이며 일본인은 '천성(天性)'도 뛰어나기 때문에 일본이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신대로부터 시작된 '군신부자의 대도'와 이를 '황성일통'으로 계승한 '국체'를 가진 토쿠가와 일본을 높게 평가한 아마자키 안사이의 '존황론'도 아이자와 야스시와 마찬가지로 '천황친정'과 '토막'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아마자키 안사이는 학문이 완성된 후인 1658년 에도에 들어가 이노우에 마사토시(井上正利, 1606-1675), 카토 야스요시(加藤泰義, 1629-1668) 등 다이묘와, 다이로(大老)이며 토쿠가와 막부 제4대 장군 토쿠가와 이에즈나(徳川家綱, 在 1651-1680)의 숙부였던 아이즈후(會津候) 호시나 마사유키(保科正之, 1611-1673)의 스승으로 활동하며 명성을 떨쳐 문인이 6천여 명에 달하게 되는 등 그의 학문 완성 후의 활동은 당시 막번체제의 실제 정치 담당자의 통치를 돕는 역할이었다.<sup>19)</sup>

이러한 아마자키 안사이의 인식에 대해 단군이 조선의 상고시대에 '예악형정'을 확립하여 중국의 '삼대'와 대등한 시기에 문명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명청교체 후 중화가 사라진 현실에서 '예악형정'의 전통을 계승한 조선만이 중화라고 하는 '조선중화주의'를 주창한 안정복(安鼎福, 1713-1791)도 역성혁명이 없는 일본의 '황통일성'을 높게 평가하였고<sup>20)</sup> 아마자키 안사이 및 그 학파의 사상을 지지하였다.<sup>21)</sup> 따라서 에도시대 일본에서 나타난 유교적 가치관인 '군신부자의 대도'에 입각하여 일본이 건국되었고 이를 제사를 통해 천황이 계승했다고 하는 논리를 근간으로 하는 '존황론'은 명청교체 후 동아시아에 나타나는 '자국 중화주의'의 한 단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9) 阿部吉雄(1965)『日本朱子學と朝鮮』東京大學出版會、pp.240-241

20) 一姓相傳。至今不已。是中國聖王之所不能者。誠爲異事。而封建之法能行焉。且其器械之精妙。制度之一定。則不可以蠻夷忽之也。若文之以禮樂。則誠海中之樂土也。『順庵先生文集』卷之二、上星湖先生書、戊寅。民族文化推進會(1996)『順庵集』1、p.32

21) 이호윤(2017)「일본 주자학과 큐코사」『일본근대학연구』56호, pp.241-242

## 5. 제정교일치와 백성교화

토쿠가와 일본의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한 주자학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성선설(性善說)’을 계승하여 송대 형이상학적 철학체계가 더해져 성립된 사상이며 이는 주렴계(周濂溪, 1017-1073)<sup>22)</sup>나 정이천(程伊川, 1033-1107)<sup>23)</sup>이 ‘성인(聖人)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닌 학문을 통해 달성되는 영역이다’는 선언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이 유교적 이상향에 대한 도달이 ‘고정불변’이 아닌 ‘예악문물’의 유무에 의해 달성된다고 하는 ‘가변적’, ‘보편적’ 가치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24)</sup> 즉 근세 주자학적 화이관은 예의(禮義)가 있으면 소인이 군자가 될 수 있지만, 예의를 잃으면 군자도 소인으로 전락한다는 것과 같이 ‘예악문물’이 존재하는 곳이 ‘화(華)’이며 그 ‘화’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夷)’로 전환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예악문물’에 입각한 유교적 이상의 달성도에 따른 자기우월적 논리는 명청교체 후 동아시아에 등장하는 ‘조선중화주의’, ‘일본중화주의’를 관통하는 논리였으며 아이자와의 ‘군신부자의 대도’, ‘인륜의 대도’의 현현이라는 논리로 성립하는 ‘국체론’에도 보이는 사상이다.

아이자와는 ‘서세동점’적 상황에서의 대외적 위기감으로 인해 일본의 배타적 주체로서의 국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천황의 절대성과 그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아이자와의 ‘존황사상’은 천황의 상징적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토쿠가와 막번체제상의 막부의 절대권위를 상대화시키는 효과는 가져왔을지는 모르지만 실질적 일본의 통치권자였던 막부 장군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당시의 미토학자들은 충효라는 유교적 질서에 입각하여 천황의 절대성을 상징적 담보로 하여 막부의 현실정치적 헤게모니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sup>25)</sup> 막번체제의 모순으로 인한 사회 혼란과 ‘서세동점’이라는 내외환 상황 속에서 막번체제를 강화하고 민심의 동요를 막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즉 토쿠가와 가문이 통치하며 에도 방위 임무를 자임하고 있었던 막번체제의 핵심 지역인 미토번에서 발생한 미토학은 ‘내외환’이라는 19세기적 상황에서 대외적 위기 타개를 위해 제시한 방책으로 ‘백성’의 뜻 즉 민심을 흡인하고 하나로 모아서 내정개혁을 단행하고 국가로서의 통일성을 강화할 것을 역설하였던 것이다.

22) 或問聖可學乎。濂溪先生曰可。有要乎。曰有。請問焉。曰一為要。一者無欲也。

『近思錄』存養篇。陳榮捷篇(2007)『近思錄詳注集評』華東師範大學出版社、p.140

23) 伊川先生曰。學以至聖人之道也。聖人可學而至歟。曰然。『近思錄』為學篇。陳榮捷篇(2007)、p.41

24) 이러한 ‘예악문물’에 입각한 자타인식을 가쓰라지마 노부히로(桂島宣弘)는 「예·문(예문(禮·文) 중화주의」라고 정의하고 있다. 「예·문 중화주의」에 대해서는 桂島宣弘(1999)『『華夷』思想の解体と國學的『自己』像の生成』『思想史の一九世紀』ペリカン社를 참고하였다.

25) 今中寛司(1982)、p.78

제사는 모두 그 의를 보존한다. 이를 조정에서 행하여 이를 사방에 도달하게 한다. 근본을 보답하여 처음으로 돌리는 의에 도달하지 않음이 없으며 만물을 사랑하고 백성을 양육하는 뜻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이것은 천황이 이미 하늘을 섬겨 선조를 제사 지내고 효를 떨쳐 백성을 사랑하는 이유의 뜻을 내걸었고 그럼으로써 천하가 이와 동일해진다. 이러한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러한 예(禮)가 있다. 이로써 백성들은 나날이 이로 인해 말하지 않고도 이해하며, 말하지 않고도 깨우치며 각각 그들이 섬기는 곳으로 충성을 바쳐 함께 천조를 받든다. 백성의 뜻을 하나로 하는 이유이다. (長計)<sup>26)</sup>

이러한 아이자와의 국체론은 막번제적 군신질서인 ‘천황-막부장군-번주-무사-백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신의 군주 즉 번주 및 막부장군에 대한 직접적 충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넘어선 천황에 대한 충성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아이자와가 말하는 국체론은 자기의 직접적인 군주인 번주나 막부장군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 것이 결국 천황에 대한 충성이라는 논리였다. 그리고 그는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제사 체계를 구상하여 서양 기독교세력으로 향할 수 있는 민심을 끌어들이며 막번체제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이로써 제정은 하나로 귀일하며 백성은 희망을 두는 바가 있게 된다. 천하의 신기(神祇)는 모두 천황 성의가 미치는 곳이다. 이러한 뜻이 있다면 반드시 이러한 예의가 있다. 백성은 이로 인해 또한 하늘의 뜻이 향하는 바를 알며 기뻐하며 받든다면 충효의 마음과 관계되는 바가 있어 하나로 모아진다. (長計)<sup>27)</sup>

아이자와는 제사와 교화가 하나라는 제정교일체를 이야기하고 있다. 즉 아이자와는 ‘천하의 신기’ 즉 모든 신사(神社)의 제사를 천황의 제사와 관계 지어 천황제사를 정점으로 한 제사의 체계화를 도모하였으며 그 체계를 ‘전례교화의 근본’이라고 부르며 또한 제정교일치의 구상이라고도 표방하였다.

오랑캐를 제어하는 책략을 한번 정하고 바꾸지 않는다면 국시가 하나로 되어 백성들이 모두 그

26) 祀は皆其の義を存す。之を朝廷に行ひて之を四方に達す。報本反始の義達せざるは無く、愛物養民の意盡くさざるは無きなり…是れ天皇既に天に事へ先を祀り孝を申べ民を愛する所以の意を擧げ、而して天下を之を同じくするなり。是の意有れば必ず是の禮有り。是を以て民日日之に由り、告げずして而も曉り、語らずして而も諭り、各々忠を其の事ふる所に輸し、以て共に天朝を奉戴す。民の志を一にする所以なり。(pp.225-227)

27) 是を以て祭政は一に歸し、而して民、望を屬する所有り。天下の神祇は、皆天皇誠意の及ぶ所、是の意有れば必ず是の禮有り。民此に由りて亦上意の嚮かふ所を知り、感欣奉戴すれば、忠孝の心係る所有りて、而して一に純なり。(p.229)

방향을 알게 된다. 따라서 백성의 뜻을 하나로 모으기에 충분하다. … 이 때문에 상과 벌은 세상을 움직이는 방법이고 전례교화는 천세를 다스리는 방법이다. 때문에 선정(善政)은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선교(善教)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두려워하는 것은 일시의 위엄이며 이를 사랑하는 것은 영원한 기반이 된다. 따라서 또한 좋은 가르침은 민심을 얻는 것이라고 말한다. (長計)<sup>28)</sup>

아이자와는 제정교일치(祭政敎一致)적인 ‘종교제사’ 구상 즉 전례교화와 선한 가르침을 서양세력(夷狄)을 제어하는 책략으로 삼아 백성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민심 흡인책으로 생각하였으며 백성에 대한 교화 즉 ‘제정교일치’에 입각한 ‘교화정치’를 그 핵심 주장으로 하여 서양세력과 기독교에 대항하려고 하였다.

아시카가 요시미츠 같은 자는 즉 무릎을 꿇고 명나라에 대해 신하라고 칭했다. 안으로는 왕의 신하이면서 외부에 대해서도 신하라고 칭하는 것은 신하의 절개가 아니다. 그렇지만 세상(천하)은 이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스스로 세상의 권세를 조종하면서도 이방 나라에 대해 신하라고 칭한다면 이방 나라가 일본(天朝)을 번신(藩臣)으로 보도록 함이 되어 국체를 손상하게 됨이 매우 심하다. 그렇지만 세상이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명분과 절개가 땅에 떨어지고 군신의 의가 없어졌다. 백성의 풍속이 날마다 경박해지며 나빠졌고 그럼으로써 근본에 보답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의를 남기고 가독을 이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혈운을 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모른다. (國體上)<sup>29)</sup>

또한 아이자와는 ‘군신부자의 대도’, ‘인륜의 대도’와 같은 주자학에 입각한 전통적인 동아시아의 세계인식과는 다른 ‘예악문물’ 대신 혈운(血胤=血統)을 자기 우월성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때문에 백성은 오로지 천조를 경외하고 하늘의 후손(天胤)을 받드는 것만 알면 된다. 항할 곳을

28) 夷狄を御するの略一定して變ぜざれば、則ち國是一に歸し、民は皆方を知る。固より以て民志を一にするに足る。…是の故に慶賞威罰は一世を鼓動する所以にして、而して典禮教化は千載を綱紀する所以なり。故に曰く、善政は民之を畏れ、善教は民之を愛すと。之を畏れしむるは一時の威にして、之を愛するは永世の固なり。故に又曰く、善教は民心を得るなりと。(pp.203-205)

29) 足利義滿の如きに至りては、則ち膝を屈して臣を明に稱せり。内は王臣たりて、而も臣を外に稱するは、人臣の節に非ず。而も天下之を怪しむこと無きなり。身には天下の權を操りながら、而も臣を異邦に稱すれば、異邦をして天朝を視ること藩臣の如くならしむ。國體を虧くや甚し。而も天下之を怪しむこと無きなり。名節地に墜ち、而して君臣の義廢せり。民俗日に薄惡に趨き、而して報本反始の義を遺れ、家督の利統べきを知るも、而も血胤の重んずべきことを知らず。或は異姓の子を養ひて以て己が子と爲す。(pp.35-37)

하나로 정하고 다른 것을 보지 않는다. 이로써 민심을 하나로 하여 하늘과 사람이 합해진다. 이것이 제왕이 믿음으로써 세상을 보존하는 바이며 조종(祖宗)이 나라를 세워 (국가의) 근본을 연 근거의 대강이다. (國體上)<sup>30)</sup>

하늘의 혈통을 받드는 것으로 민심을 하나로 할 수 있고 이것이 천조가 일본을 건국한 근거라고 생각했다.

‘백성교화’와 혈통에 의한 ‘자타인식’은 ‘국민교육’과 ‘인종’, ‘민족’ 등으로 자타를 구분하는 ‘근대적’ 가치관을 연상시키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본기, 열전 편찬시의 도덕적, 윤리적 판단기준에서 특수성을 보이는 제도사인 지·표 등을 중심으로 하는 후기미토학의 학문적 경향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서세동점’ 상황에서 서양 근대와의 조우 및 접촉으로 인해 화이론적·주자학적 사상이 ‘국민교화’, ‘민족’ 등을 기준으로 하는 ‘근대적 사상으로의 이행’을 보이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아이자와의 사상이 후일 근대 메이지 국가의 천황제와 국체사상에 수용될 수 있었으며 폐리 내항 이후 개국 여부를 둘러싸고 존황양이를 슬로건으로 하는 정치운동이 전국에서 전개되었을 때 아이자와 야스시의『신론』은 막말 존황양이론자들의 필독서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고 아이자와의 사상은 메이지 이후 천황제사를 정점으로 전국의 신사 체계화를 도모한 국가신도와 외부에 의한 위기상황을 교육이나 의례를 통해서 ‘국민’을 단결시키고 ‘혈통에 입각한 만세일계의 천황신화’를 만들어 극복하려고 한 메이지 국가의 천황제와 국체론에 흡수되어 근대 일본의 ‘국민국가적 언설’의 원류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 6. 나가며

이상 19세기 일본의 대외위기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보편사상인 유교적 세계관이 대응해 가는 모습을 아이자와 야스시의『신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아이자와 야스시는『신론』에서 ‘국체’를 강조하였다. 국체는 일본적 우월성이라는 고유한 전통에 대한 자각을 표현한 개념으로 이후 메이지유신으로 성립된 천황제국가의 사상적 근간이 되었다. 그런데 아이자와의 사상은 유교가 그 근간이었고 ‘도’라는 것은 ‘인륜지도’였으며 도덕론도 제사론도 유교적 사생론에 입각하고 있었다. 국체론도 ‘천’개념에 입각한 기기신화의 유교적 해석이었다. 또한

30) 주13)과 같음

국체의 고유성과 우월성도 ‘황통일성’이라는 역사적 ‘사실’ 안에 보편적 도덕의 관철을 보이는 형태로 논증되었다. 후기미토학은 기기신화라는 일본의 역사적 ‘사실’을 유교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성립했으며 국체론은 그러한 사상으로부터의 자국인식이었다.

아이자와의 사상은 막번제적 군신질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번주나 막부장군과 같은 자신의 군주에 대한 직접적 충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천황에 대한 충성을 말하고 있지는 않았다. 아이자와가 말하는 국체론은 자기의 직접적인 군주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 것이 결국 천황에 대한 충성이라는 논리였다. 이는 일본우월의 근거인 ‘군신부자의 대도’로 국가를 건설한 천조의 혈운인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제사 체계를 구상하여 서양 기독교세력으로 향할 수 있는 민심을 끌어들이며 막번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이자와는 대외적 위기의 대응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것은 민심의 통일이라고 말했는데 『신론』이 시작되는 「국체」 편에서부터 끝나는 「장계」 편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백성에 대한 교화 즉 ‘제정교일치’에 입각한 ‘교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아이자와와 야스시의 이러한 종교적 구상은 발표 당시에는 일부 무사에게 영향을 미친 것에 불과하였고 민중일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근세 후기에는 막번체제 위기 속에서 공동체 질서로부터 내몰린 최하층 계층을 민중종교가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아이자와와 야스시의 국체론과 제사 구상은 비록 근세 후기 당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메이지 이후 천황제사를 정점으로 전국의 신사 체계화를 도모한 국가신도와 교육이나 의례를 통해서 ‘국민’을 단결시키고 ‘혈통에 입각한 만세일계의 천황신화’ 및 메이지 국가의 천황제와 국체론에 흡수되어 근대 일본의 ‘국민국가적 언설’의 원류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 【參考文獻】

會澤安(1942)『新論・迪彞編』岩波文庫

阿部吉雄(1965)『日本朱子學と朝鮮』東京大學出版會, pp.240-241

イマニュエル・ウォーラステイン、川北稔訳(1981)『近代世界システム：農業資本主義と「ヨーロッパ」世界經濟の成立』岩波書店

尾藤正英(1973)「水戸學の特質」『日本思想大系』53、岩波書店, pp.562-564

今中寛司編(1982)『日本近代化と維新』ぺりかん社, p.74, p.78

辻本雅史(1990)『近世教育思想史の研究』思文閣出版

頼祺一編(1993)『日本の近世13－儒學・国学・洋學』中央公論社, pp.350-351

박명규(1991)「한국과 일본의 근대국가 형성과정에 관한 비교사적 연구 -19세기 후반 정치변혁과정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37

本郷隆盛(1995)「藤田幽谷『正名論』の歴史的位罫」衣笠安喜編『近世思想史研究の現在』思文閣出版、

pp.157-158

民族文化推進会(1996)『順庵集』、p.132

桂島宣弘(1999)『『華夷』思想の解体と国学的『自己』像の生成』『思想史の一九世紀』ぺりかん社

子安宣邦(2002)『鬼神論』白澤社、pp.22-23

陳榮捷篇(2007)『近思錄詳注集評』華東師範大学出版社、p.41、p.140

이호윤(2017)「일본 주자학과 큐코사」『일본근대학연구』56호、pp.241-242

Maurice B. Jansen, 濱田龍吉, 平尾道雄訳(1965)『坂本龍馬と明治維新』時事通信社、pp.113-114

---

논문투고일 : 2019년 06월 20일  
심사개시일 : 2019년 07월 17일  
1차 수정일 : 2019년 08월 06일  
2차 수정일 : 2019년 08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9년 08월 16일

---

## 〈要旨〉

### 19세기 일본의 대외위기와 사상적 반응

- 아이자와 야스시의『신론』을 중심으로 -

이호윤

19세기 동아시아는 ‘서세동점’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인 ‘천하질서’가 붕괴하고 새로운 ‘근대세계시스템’에 강제로 편입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서세동점’에 의한 위기감과 세계관의 급격한 변화는 당시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고 ‘서세동점’에 대한 극복하려고 하는 사상적 동향으로 토쿠가와 일본에서 후기미토학이 나타났다. 후기미토학은 미토번의『대일본사』편찬작업에서 출발한 미토학이 막말 내외환의 국가적 위기에 즈음하여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동향 중에 등장한 사상이었다. 그리고 후기미토학 사상의 대표적인 글이자 막말 존황양이지사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아이자와 야스시의『신론』은 ‘국체’를 강조하여 이후 메이지유신으로 성립된 천황제국가의 사상적 근간이 되었다. 그런데 아이자와의 사상은 유교가 그 근간이며 막번제적 군신질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군주에 대한 직접적 충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천황에 대한 충성을 말하고 있지는 않았다. 아이자와가 말하는 국체론은 자기의 직접적인 군주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 것이 결국 천황에 대한 충성이라는 논리였다. 이는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제사 체계를 구상하여 서양 기독교세력으로 향할 수 있는 민심을 끌어들이며 막번체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이자와는 대외적 위기의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을 통일하는 것이며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백성에 대한 교화 즉 ‘정교일치’에 입각한 ‘교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후기미토학의 제사 구상은 19세기 아이자와 당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이후 메이지 국가의 국가신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미토학과 아이자와의 사상은 후일 외부에 의한 위기상황을 교육이나 의례를 통해서 ‘국민’을 단결시키고 ‘혈통’에 입각한 만세일계의 천황신화를 만들어 극복하려고 한 메이지 국가의 천황제와 국체론에 흡수되어 일본의 ‘근대 국민국가적 연설’의 원류를 이루게 되었다.

### 19th Century Japan's External Crisis and Its Ideological Response

- Focusing on the “Shinron(New Theses)” of Aizawa Yasushi -

Lee, Ho-Yun

For East Asia, the 19th century was a period when the world view based on Sino-centric ‘Tienhsia(天下) World Order’ was disintegrated and it was incorporated into the ‘Modern World System’ forcibly due to the ‘Western encroachment on Asia’. This sense of crisis and rapid change of the world view caused by the ‘Western encroachment on Asia’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thought of East Asian intellectuals of the time. And as an ideological trend to counter and overcome this crisis, the later Mito (水戸) school appeared in Tokugawa Japan. The later Mito learning or study (水戸學), which started with the compilation of Dainihon-shi (大日本史; The History of Great Japan) at Mito Han(藩), was a new thought that appeared as one of the trends to overcome this national crisis during the late Tokugawa period. And Shinron (新論) of Aizawa Yasushi (會澤安), which was the representative book of the later Mito ideology and had the great influence on young Sonno Joi (Revere the Emperor, expel the barbarians) advocates during the late Tokugawa period, became the ideological backbone of the Imperial state that was created after Meiji Restoration by emphasizing ‘kokutai’ (國體) or the fundamental character of the Japanese state. However, the idea of Aizawa was based on Confucianism and presuppositions of Bakuhun(幕藩) style lord-vassal relationship, so it demanded direct allegiance to one’s lord and did not require allegiance to the Emperor. The ‘kokutai’ ideology that Aizawa mentioned was the logic that fulfilling loyalty to one’s direct superior was ultimately loyalty to the Emperor. This was to envision a ritual system that peaked at the Emperor and to attract the public sentiment which might lean toward Western Christian forces in order to stabilize the existing system.

For Aizawa, the most important thing in responding to the external crisis was to unify the public sentiment, and as the concrete method to gather the public sentiment, he was suggesting ‘enlightening government’ that was based on educating people on the ‘congruity of ritual, government, and education’. This idea of Aizawa Yasushi did not have a big impact in the 19th century, but it constituted the origin of the ‘discourse on nation state’ of modern Japan as it was absorbed by the Imperial system and ‘kokutai’ ideology when Japanese leaders wanted to overcome the national crisis by creating the state shintoism and the ‘Emperor myth of the uninterrupted Imperial family’ of the Meiji state.